# 建築家의 社会観

## 特히 南北対話에서 느낀

尹 太 鉉

建築家란 建築主의 依頼로 집을 設計하고 또는 工事를 監理하여 그 代価로 所定의 報酬를 받아서 事業体나 生計를 営為하는 者를 말한다고 定義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論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一般的인 職業 常識을 떠나, 우리가 社会의 一員으로 社会의 影響을 받아야하며 또한 社会에 影響을 줄 수 있는 存在라는 것을 再認識하고 좀 더 높은 次元과 넓은 識見으로 社会를 観察하고 社会에 参与하고 그리고 社会에 奉仕하는 마음 가짐과 姿勢가 必要하다고 느낀데 있는 것이다. 勿論 이는 비단 우리 建築家만이 아니라 教育家이건, 医師이건, 辯護士이건 누구나 社会人이면 共通된 観念이겠지만 特히 技術者란 職業에서 오는 偏僻한 고집은 本人을 為始하여 너무나 社会에 対한 無関心과 無誠意 그리고 認識不足으로 살아오지 않았는가 한번 조용히 反省할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다.

흔히 우리가 技術을 바탕으로 創作에 専攻하는데 満足하지 무슨 社会니 政治니 云云하느냐 反問하면 할 말은 없다. 그러나 政治에 対하여 無関心 一辺到만이 建築家의 참다운 姿勢다 라고 고집하는 것만이 자랑이라 하기엔 너무나 消極的이며, 非発展的인 生活態度가 아닐까. 왜냐하면 臥牛아파트를 為始, 大然閣, 大旺코너, 그리고 最近의 市民会館 등등 大小崩壊, 火災 事故가 주는 社会의 影響 또한 그린벨트나 建築制限, 施策등으로 받는 우리의 影響 등등 社会에 対한 責任과 使命感이 直接 우리 어깨에 주어진 以上, 우리는 좀더 잘할 수 있는 길을 研究 하고 開発하고 또한 建議하는 與件과 立場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歴史的인 偉大한 課業이요, 業蹟을 남길 南北의 対話가 進行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会談의 内容이나 政治性을 云云하는 것보다 建築家로서 또는 社会의 一員으로서 非 아닌 是로 退歩보다 建議로 느낀바를 論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 먼저 그들은 서울의 印象에 対하여道路가 羊腸같고 建物이 성냥갑같다고 断片的으로 말한 것 같다.

다음은 거리가 複雑하고 옷이 사치하다. 車가 많다 등등 評한 것으로 記憶하는데, 무엇 보다도 우리로서 実感을 주는 것은 前者에 属한다고 본다. 이는 簡単하고 유치한 表現인 것 같으면서 그야말로 言中有骨이라 그냥 들어 넘길 말이 아닌 것이다. 道路가 羊腸같다는 것은 都市計画이 整然 치 못하다, 無秩序하다는 뜻이 内包되고 建物이 성냥갑 같다는 것은 높고 크게 展示 効果만 為主로 한 固有様式을 살리지 않았다는 比유가 아닐까, 解釈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 比하여 우리 代表가 北韓을 말한 것은 사람이나 집이 적고 道路가 넓고 쓸쓸하다라고 評한 것으로 記憶한다. 이는 対照的인 慈味있는 表現이라고 들어 넘기기엔 너무나 無意味요 莫然한 일이다. 要는 南北赤十字会談 随行員 20余名中에 建築人士가 1名이라도 있었는가에 問題点이 있는 것이다.

家族찾기 会談에 집안 살림을 살펴보는 처지라면 우리도 여기에 対備하여, 充分한 準備를 갖추어야 하지 않겠는가하는 念慮에서 専門分野別 로 보고 들을 수 있는 均等한 人員構成이 바람직한 것이다.

우리가 建築家로서 社会的 地位를 높여 달라고 조르는 것이 一種의 "넌센스"가 아니라 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우리 自身이 社会에서 必要로 하고 믿음을 받을 수 있는 存在가 되도록 努力할 뿐이라고 본다. 即 우리 自身이 反省하고 自覚하여 実力을 向上시킴으로서 自然히 社会에서 認定받을 수 있는 位置를 確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外的인 建築에 対한 一般 啓蒙과 内的인 自身의 完成이 具備함으로서 비로서 個人과 社会 더 나아가 国家의 発展을 가져온다고 確信하고 싶다.

自古로 어느 나라, 어느 民族을 莫論하고 그 나름대로의 特有한 様式을 建築에 表現하여 固有한 象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自己 나라를 찾아오는 観光客이나 来賓으로 하여금 첫 印象을 주는 것이 바로 建築인 것이다. 希臘의 팔테논 神殿, 애급의 피라밋, 파리의 斜塔, 뉴-욕의 앰파이어 빌딩, 런던의 国会議事堂 등등 그 例라 볼 수 있다.

그래서 建築이 그 나라의 거울이요, 時代의 遺産이라 敢히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란 空気, 물, 쌀, 집 등등 없어서는 살지

못하는 것에 対하여 왕왕 그 고마움과 必要性을 잊고 살고 있는 妙한 動物이다. 沙漠을 걸어봐야 물의 貴重함을 느끼고, 몇일을 굶어 봐야 쌀의 고마움을 느끼고, 荒野에서 風雨, 寒暑을 만나 비로서 집이 必要하다는 것을 느끼는 등등 눈앞에 불똥이 떨어져봐야 움직이는 所謂 万物의 靈長인 것이다.

집은 몇百, 몇千年의 壽命을 가질 수 있다. 사람의 壽命이 百年을 넘지 못하는데 집은 한번 지어지면 例外없이 싫든 좋든 몇 代를 살어줘야하는 宿命을 지닌 것이다. 사람이 싫으면 못 산다고 하면서 집은 싫어도 꾹 참고 사는 人間은 또 다시 愚를 犯하고 있는 것이다.

建築家는 이러한 人間의 愚를 깨우치고 自身의 完成을 이루는데 最善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自身의 完成은 곧 人格 哲学을 基盤으로한 技術의 完成을 意味한다고 본다.

眞正한 人格의 修養과 明哲한 人生哲学없이 技術만의 依存이나 資格으로서는 참다운 広義의 建築을 創作할 수 있다고 断言할 수 없는 것이다.

흔히 建築家 自己가 사는 집을 設計하는 것이 아니라 他人이 사는 집을 設計한다는 것. 이 嚴然하고 当然한 原則을 錯覚하기 쉬운 때가 있다. 自己 아닌 他人이 満足할 수 있고 平安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이며 이 余件을 解決할 수 있는 方法과 手段을 建築家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為先 相対가 무엇을 바라며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얼마나 무엇을 가졌는지를 알아서 이를 冷徹히 分折하고 診断하여 満足한 処方을 내리고 同時에 完治시킬 수 있는 能力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名医요, 哲人인 것이다.

다음 他人의 要求를 들어주고 짐을 덜어주고 그리고 生命을 保護해 준다는 것은 職業을 떠난 一種의 奉仕精神 없이는 能히 할 수 있는 일이 못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人格이나 哲学을 바탕으로 한 技術의 発輝로 이룩된 創作 또는 建築이야말로 価値를 付與받을 수 있는 참다운 作品이라 断言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現実社会는 우리에게 많은 問題를 안겨주고 있다. 이를 하나하나 풀이해 나가야 한다는 使命感을 가지고, 自己 完成과 社会啓蒙에 臨하여야 한다는 벅찬 課業을 우리는 着実히 履行 하여야 하는데 매우, 難関이 있는 것은 事実이다. 또 建築이 営利業이지 社会事業이 아니다라는 것도 否認할 수 없을진데 業이란 生計하고 直結되는 것이고 生計는 곧 現実이요, 現実은 冷静하고 打協으로 이루어진다는것 이런 등등 社会의 現実과의 調整이 負加되어있는 것이다. 그리고 無恒産 이면 因無恒心이라, 우리가 生計를 維持할 수 있고, 研究에 没頭할 수 있는 社会規範이나 生産與件이 갖추어 있음으로서 社会에 奉仕할 수 있는 精神이 살 수 있다는 点을 強調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再言이지만 建築家는 어느 時代 어느 社会에서나 最高의 文化人이요, 知識人이라는 긍지를 잃어서는 않될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前述한 自己 完成이 擔保됨으로서 可能한 말이다.

国家考試에 合格하여, 医師나 婦護士등 同等한 資格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常識에 属한다. 그러나 建築이란 自体가 時間과 空間을 兼한 綜合芸術인 同時에 그안의 生活空間이 人間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할 수 있도록 科学的인 処理가 되어야 된다는 点. 그리고 特히 工事費의 低廉을 期하여야 하는点, 또한 都市의 秩序를 維持하는 計劃을 세우고 지켜야 한다는 点 등등으로 보아 芸術이요 科学, 経済, 政治, 文化, 어느 分野에도 能과 知를 兼備하여야 할 수 있다는 것은 否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南北의 対話가 進行되어 우선 体育, 文化, 観光등의 交流가 可能性이 비치고 있는 此際 우리는 建築家로서 또는 社会人으로서 自身의 姿勢를 거울 앞에 놓고 볼 때가 아닌가 生覚한다. 假令 國際, 観光地로서 金剛山을 綜合 開発하기로 되였다 하자면 이를 計劃하고 設計, 施工을 進行시키기 為하여 南·北의 建築家가 한 자리에 모이게 되였을 境遇 또는 都市 建物의 乱立이나, 道路計劃의 不実에서 派生되는 空気, 河川汚染, 騒音 등 公害発生을 놓고 討論한다고 假定하였을 경우, 充分히 対談할 準備 態勢가 되여있는지, 冷静한 自己 反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見地에서 볼 때 建築家는 社会에 対한 새로운 観念下에 負荷된 建設分野의 一翼을 忠実히 完遂하여야 한다는 것은, 勿論 좀더 次元 높은 境地에서 社会観을 넓히고, 自身의 完成과 社会奉仕의 精神을 가지는데, 最善의 努力을 傾注 할 때가 바로 이 때라 느껴야 할 것이다. (会員)